

## NBA 출신 외인 윌리엄스 현대모비스 6강행 이끌까

유재학 감독 “슛·패스 능력 만족”

울산 현대모비스는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 리그에서 18승22패로 7위에 올라있다. 플레이오프(PO) 진출 마지노선인 6위 인천 전자랜드(20승20패)와의 격차는 2경기다. 잔여 14경기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다.



윌리엄스

A매치 휴식기 직전의 경기를 외국인선수 1명으로 치른 현대모비스는 새로운 외국인선수 레지 윌리엄스(34·196cm)와의 호흡을 끌어올리기에 바쁘다. 현대모비스는 15일부터 팀 훈련을 재개했다. 20일과 22일 대학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조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윌리엄스 또한 동료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며 KBL 리그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유재학 감독(57)은 17일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다. 신장은 큰 편이 아니라 외국인선수 1명을 기용하는 상황에서는 높이에 부담이 따르지만 슛, 패스 등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시즌까지 독일 무대에서 활약한 뒤 7~8개월 정도 쉬었다.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휴식기를 통해 풀어올린다면 팬층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팀에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함께 뛰면서 한 단계 올려줄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 7시즌을 활약했고, 풀타임으로 한 시즌을 소화한 적도 있다. 2017년에는 현재 서울 SK 소속인 자일 위니와 함께 미국남자대표팀 일원으로 국제농구연맹(FIBA) 아메리카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윌리엄스가 휴식기 이후 현대모비스의 6강행 도전에 큰 뒷받침이 될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 일본 B리그연합, 유소년 최강전 초대 우승

일본 B리그 연합팀이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0 KBL 유소년 농구 최강전 결승전에서 휘문중학교를 80-62로 꺾고 초대 우승컵을 안았다. 일본 B리그 연합팀의 손류 아에가시 선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았다. 화봉중과 전주남중은 공동 3위에 올랐다. 엘리트 선수들과 비엘리트 선수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KBL 10개 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클럽 팀 중 선발된 3팀, 2019 스퀘어준우승팀, 중고연맹 소속 7팀, 일본 B리그 연합팀 등 총 12팀 240명이 참가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 우리은행 역전승 진두지휘 ‘리더의 품격’



# 3쿼터만 10점 승부사 박혜진

가로채기·어시스트·득점·돌파 자유자재 베테랑 포워드 김정은 공백 투혼으로 메워

우리은행 박혜진(오른쪽)이 17일 열린 신한은행전에서 완벽한 찬스를 잡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산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이산 우리은행 박혜진(30)이 해결사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팀을 리그 선두에 올려놓았다.

박혜진은 17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5라운드 인천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14점·5리바운드·6어시스트로 맹활약해 팀의 65-53 승리를 견인했다. 우리은행(16승5패)은 청주 KB스타즈(16승6패)를 0.5경기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베테랑 포워드 김정은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 나섰다. 박혜진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본인도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대표팀에 다녀왔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박혜진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듯 2쿼터까지는 부진했다. 20분을 다 뛰었지만 4점·4어시스트를 올리는데 그쳤다. 4차례 3점슛을 모두 실패하는 등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 듯 했다. 우리은행 벤치에서 박혜진에서 계속 슛을 주문했지만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 슛을 아끼는 모습이 었다.

하지만 3쿼터 중반 이후 달라졌다. 박혜진은 수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내면서 공격에서의 리듬도 되찾았다. 2개의 가로채기를 성공해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다. 자신이 직접 해결할 때도 있었지만 패스를 통해 동료들의 득점을 지원하

기도 했다. 3쿼터 말미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던 3점슛을 림에 적중시켰고, 3쿼터 종료 직전에는 1대1 돌파를 통해 상대 파울을 끌어내 자유투를 얻어내기도 했다. 박혜진은 3쿼터에만 10점을 직접 해냈고, 2개의 가로채기와 1개의 블로킹 등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선보였다. 그 덕분에 우리은행은 3쿼터까지 49-43으로 앞설 수 있었다.

4쿼터 시작 후 신한은행이 49-45로 추격하자 박혜진은 김소니아에게 완벽한 골밑 2득점을 이끌어내는 어시스트 패스를 해냈다. 이후에는 경기를 조율하면서 르산다 그레이의 골밑 포스트업 플레이를 통한 안정적인 루트를 찾아주는 등 팀 리더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산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1 FA 세부 규정 손질 2 소프트 캡 공론화

(규제 완화된 셸러리 캡)

### KBL 차기 이사회가 주목받는 이유

FA선수가 10개팀 협상 가능하지만 보상선수 등 세부 규정은 확정 안돼 셸러리 캡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는 남자농구대표팀의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전 홈&어웨이 경기로 휴식기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남자프로농구를 관장하는 KBL은 차기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개최 시기는 미정이다. 이번 시즌 종료 후 적용될 자유계약선수(FA) 제도 세부 규정 및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한 차례 이상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셸러리 캡의 일부 완화가 다시 의제가 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FA 제도의 큰 틀은 이미 이사회를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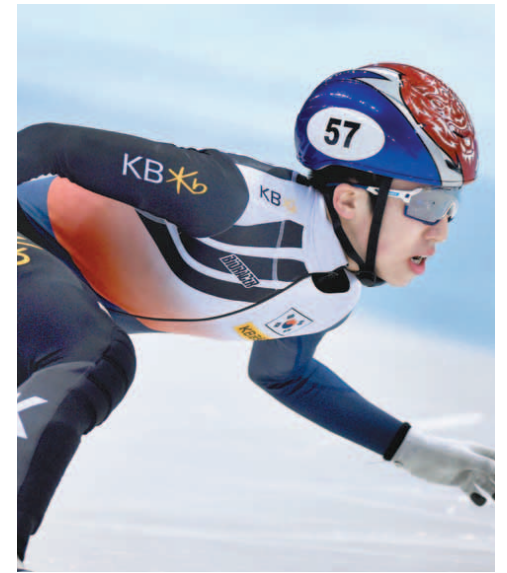
했다.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은 이제 원 소속구단과의 우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10개 구단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상선수 규정 등 손질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보상선수 규정의 경우 일단 이번 시즌 종료 후 열리는 FA 시장에서는 기존의 보상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2020~2021시즌 종료 후 FA 시장에서 보상 규정을 아예 철폐하느냐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단은 여전히 FA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시 보상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를 최대한 없애야 리그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구단들도 있어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에 맞닿춰 셸러리 캡을 다소 완화하는 이른바 ‘소프트 캡’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셸러리 캡을 완전히 풀자는 의견은 아니다. 쉽게 얘기해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선택한 구단이 나올 수 있는 리그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해진 셸러리 캡 이상을 선수단에 투자하는 구단이 나오면 셸러리 캡을 넘겨 활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프로농구(NBA)에 ‘사치세’라는 항목으로 존재한다. 사치세를 걷어 셸러리 캡을 지키는 구단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갑을논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프트 캡’ 도입까지는 협회가 예상되지만 그동안 KBL의 각종 규정 정책이 리그의 하향평준화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뒤따른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새 시즌 일정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농구대잔치의 부활, 9월 새롭게 창설될 컵 대회, 시즌 개막전 각종 국제대회 출전 등 2020~2021시즌 일정 전체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박지원(사진)은 2019~2020시즌 월드컵시리즈를 통해 세계랭킹 1위로 우뚝 섰고, 황대현은 500m와 1000m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중심축이 있으니 대표팀의 미래도 그만큼 밝다. AP뉴시스

## 박지원·황대현 ‘황금시대’ 여나

박지원 월드컵 2관왕 세계 랭킹 1위 황대현 부활·김다겸도 1000m 우승 이준서, 한국 취약종목 500m 금메달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당하면서 긴 침체기를 겪었다.

이후에도 최민정(성남시청)과 심석희(서울시청) 등 확실한 에이스를 보유한 여자대표팀과 달리 남자대표팀은 확실한 에이스를 발굴하는 데 애를 먹었다. 2018평창올림픽에서 임효준(고양시청)이 금메달을 안기기 전까지 에이스의 공백이 생각보다 길었다.

그러나 이제는 큰 걱정이 필요 없을 듯하다. 확실한 원투펀치가 중심을 잡고 있는 데다 누구든 세계무대에서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2019~2020시즌 세계랭킹 1위로 우뚝 선 박지원(24·성남시청)과 황대현(21·한국체대)을 필두로 김다겸(23·성남시청)과 이준서(20·한국체대)가 뒤를 받치는 모양새다. 최근 부진했지만 1차대회 500m와 1000m, 2차대회 1000m를 석권한 황대현도 대표팀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에이스다.

남자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에서 막을 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19~2020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6차대회에서도 5000m 계주를 제외한 개인전 전 종목을 휩쓸었다. 박지원이 1500m와 1000m 2차레이스까지 2관왕을 차지했고, 김다겸이 1000m 1차레이스, 이준서가 500m를 석권했다. 특히 한국의 대표 취약종목인 500m에서 새로운 금메달리스트가 등장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다.

박지원은 ISU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나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레이스에 임한다. 결선에는 최고의 선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어린 시절부터 매일 훈련한 게 지금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나는 여전히 더 빨라지고 싶고, 기술과 전략을 향상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대표팀은 이번 6차대회에서 이유빈(연세대)과 김지유(성남시청)가 여자 1000m 1·2차레이스에 걸린 금메달을 휩쓰는 등 총 6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에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시작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머느리가 암바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커 차는 그날까지!

각종기예능의 동반자

**이중TV**

이중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